



전자랜드, 31일까지 '쿨 세일 대전' 실시

전자랜드가 31일까지 여름 시즌 '쿨 세일 대전'을 진행한다. 에어컨 행사 모델 구매 시 최대 20만 원의 추가 캐시백을 증정한다. 또 에어컨과 제습기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25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가전제품 사고 사이판 여왕가자!' 이벤트도 마련했다. 삼성카드도 에어컨 또는 냉장고를 구매한 고객 중 1등 1명에게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포함한 사이판 4박5일 여행 2인권을 준다.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우회전 땀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추세요!”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 350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회전 통행방법이 법제화되는 12일부터 자칫 우회전 교통사고를 내면 중과실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진 또는 영상으로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13개 교통 법규 위반 항목의 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전방차량 신호 녹색일 때도 보행자 우선 통행 위반 시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 범칙금 사고 땀 합의 여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져 교통 위반 항목 추가·사진·영상 찍혀도 과태료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법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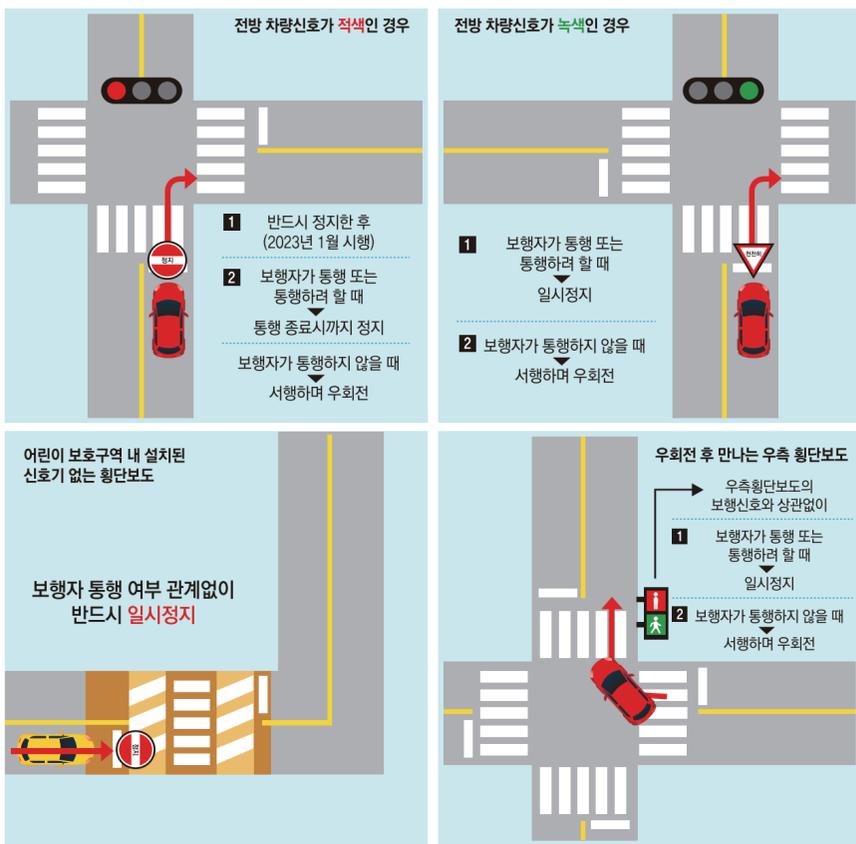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시 주의해야 할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다. 이때는 우회전시 반드시 일단 멈추는 것이 포인트다. 우회전 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횡단보도 앞 혹은 정지선에서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시까지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 방법이다.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시까지 멈춰야 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



울러 내년 1월부터는 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가 할증된다.

한 가지 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는 통행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20km 초과해 과속 단속시 1회 5%, 2회 이상시 10% 보험료가 할증(9월 시행) 된다.

●신고시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 추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

해 입증될 경우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13개 항목이 추가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화점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적재 중량·용량 초과, 안전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등이다. 사진만 찍혀도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롯데건설 주영수 상무(왼쪽)가 '2022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건설

“고객 니즈 파악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롯데건설, 한국서비스대상서 종합대상

아파트부문 21년 연속 수상...국내·외 시장 선도해

롯데건설은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21년 연속 아파트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서비스대상은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전반에 서비스 성과와 수준이 탁월한 기업에게 주어진다.

아파트 부문 종합대상을 차지한 롯데건설은 국내 1위의 초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를 준공하고 토목, 발전, 화공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획 및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999년 국내 주택업계 최초로 '롯데캐슬'을 출시해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열고 프리미엄 브랜드 롯데캐슬로 국내의 고품격 주거 문화를 이끌어 왔다. 2019년에는 고객 트렌드를 새롭게 반영한 외관, 조정, 커뮤니티 시설 디자인을 선보였고, 이후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EL)을 론칭해 최고급 주거 공간 구현에 힘쓰고 있다.

롯데건설은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생활 전반의 편의와 품격을 끌어올려 21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고객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순 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며 “21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만큼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원인 모를 어지럼증 계속되면 'PPPD' 의심 책·휴대폰 볼 때 심해져...신경과 내원해야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장시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만성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이나 학업, 직장 업무 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주기 마련이다.

발생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만성 어지럼증 중에 상당수가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증(PPPD)에 해당된다.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PPPD를 의심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어지럼, 자세불안, 그리고 흔들거리거나 출렁이는 느낌의 비회전현훈 등이 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에 비해 서 있거나 걸을 때 심해지고 자동차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책이나 모니터, 또는 휴대폰을 볼 때 심해지기도 한다.

PPPD를 진단하는 데 특이적인 신체 검진, 검사 결과나 영상 소견은 없다. 하지만 신체검진 소견 및 임상적 필요에 의해 시행한 진단검사들은 PPPD 진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다.

PPPD는 부정질환을 앓았거나 공황, 불안장애, 두경부 손상 또는 내과질환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선행사건 없이 오기도 한다. PPPD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대부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속되는 어지러운 증상에 시달린다면 신경과에 내원해 정밀 검사 및 원인 분석, 치료에 나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안 신경과 이연오신경과
이보람 원장(신경과 전문의)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친환경 유통 생태계 넓힌다”...기아,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

차량 장착 배터리 활용해 냉동기 가동
1000kg 적재중량...150km 주행가능

기아가 친환경 유통 생태계 확대를 위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차량인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4일 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고객의 목소리, 친환경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한 봉고 III EV 조장축 킥백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는 2019년 약 26조9000억 원에서 2021년 58조5000억 원으로 2배 넘게 성장했다. 이로 인해 냉장·냉동탑차 시장도 같은 기간 1만7300대에서 2만1200대로 22% 증가(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도록 개발했다.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기아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의 방향성을 담아 개발된 차량이다. 사진제공 | 현대차

판매 중인 외부 특장업체 차량 대비 350kg 향상된 1000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하며,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과정도 필요치 않다.

또한 출시 전 지역 냉장·냉동 물류 서비스 업체 및 운전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 단계에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켰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시 177km(냉동기 미가동상태 기준)를 주행할 수 있

고, 냉동기를 가동하면서도 15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되며 저상형 5984만원, 표준형 5995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기준 788만원),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고대의료원, 사회공헌사업 영역 확대

고려대의료원이 사회공헌사업본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영역 확장에 나선다. 최근 범 기관 차원의 사회공헌사업위원회를 열어 의료지원 및 ESG 실천 등의 사회공헌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7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1200여 명의 고령인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광주광역시, 인천 등지의 고령인 밀집 거주지역에 검진서비스를 포함한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진료를 한다. 2차 진료 및 시술 등이 필요한 피난민의 경우 고려대병원으로 옮겨 지원한다.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한다.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서 운영하는 ESG 위원회에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업과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